

중소기업 CEO 유고시 리스크 관리 방안

중소기업 CEO의 부재는 곧 해당 사업의 존폐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리스크에 해당합니다. 조직과 시스템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 지는 대기업과는 달리 비상장중소기업은 모든 부분의 업무가 CEO에 의해 지시되고 집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CEO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이라도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실로 심각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CEO의 부재는 유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CEO 유고시 기업 리스크

01.

**대출 등 차입금,
외상매입금 상환 부담 리스크**



CEO의 갑작스런 부재는 사업의 존립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CEO를 믿고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나 장기외상매입금 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즉각적인 자금상환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단기유동성 리스크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CEO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위기도 CEO가 없다면 회사의 부도로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03.

대표이사
가지급금 리스크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목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여 많게는 수억원씩 장부상에만 쌓여있는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유고시 전액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부채가 됩니다. 게다가 상속세 계산시 부채로 공제 받지 못하고 비상장주식평가시 주식가치를 높여 상속재산가액을 증가시킵니다.

04.

임직원 임금채무 및 퇴직금 등 확정 부채 리스크



CEO의 갑작스런 유고에 따른 충격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부담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한꺼번에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05.

회사의 부도 리스크



CEO가 살아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위기들이 CEO가 없을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예상치 못한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를 꼬리위험이라 하는데, CEO의 부재는 기업에 있어 대표적인 꼬리 위험으로, 그 결과 회사의 부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CEO 유고시 **유족 리스크**

01.

상속세 리스크



중소기업 CEO의 상속자산을 보면 경영하던 법인의 주식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가치는 최소 30억원을 훌쩍 넘지만 문제는 당장 낼 상속세를 위한 현금성 자산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02.

유가족 리스크



경영하던 기업은 CEO 본인에게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최고의 수익을 내는 우량자산이지만 CEO가 없다면 유가족에게는 고위험 주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비교적 안정적 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03.

대표이사 연대보증 리스크



CEO의 부재로 회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부도까지 이어진다면 유가족들은 법인의 차입금 및 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 CEO의
사망보장설계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

”

· CEO유고시 **회사 안정화 및 정리자금 활용**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 할지라도 현금유동성은 시기에 따라 좋거나 나쁠 수 있습니다. CEO 사망시 100% 수령 가능한 유동성 자산은 바로 CEO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입니다.

· 상속세 자원 및 유가족 생활자금을 법인 차원에서 준비

대부분의 CEO들이 급여를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상속세 자원 및 유가족의 생활자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법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신 유가족들에게 해당 자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등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에 대한 가족 주주 지분별 사전 증여효과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각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증가합니다. 즉, 가족간 지분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EO를 피보험자로 한 법인계약을 하면 보험금에 대한 사전 증여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 없어 보이는 시점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CEO 유고시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는 바로 회사의 영속과 유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현재 시점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